

몰디브 원조공여국 회의 결과

최근 몰디브에서 원조공여국 회의가 개최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I. 동 회의 참석자

- 정부대표 참석 국가:우리나라를 비롯, 호주, 캐나다, EU, 핀란드, 이태리 미국, 오만 등 8개국
- 국제기구: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UNDP, UNICEF, UNEP,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이슬람개발은행, 아랍경제개발을 위한 쿠웨이트 펀드(DFAED), 사우디개발펀드(SFD) 등 9개 기관
- 몰디브 정부: Mohamed 재정 및 금융부장관, Hamdun Hameed 기획 및 국가개발부장관 등 8명
- NGO: 몰디브, 필리핀, 대만 등의 NGO 11개 단체 참석

II. 주요 회의 내용

1. 몰디브 정부 지진해일피해 및 복구재원 소요 현황 설명
 - 1) 몰디브 지진·해일 피해현황
 - 몰디브는 금번 지진·해일 피해금액은 470.1백만불로 몰디브 GDP의 62%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음.
 - '04년 현재 인구 29만 명 중 83명 사망, 26명 실종, 약 21,5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몰디브 전체인구의 약 33%인 10만 여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음.
 - 전체 1192개 섬 중 199개 섬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나 그 중 104개 섬이 피해를 입었으며 전기 두절 26개 섬, 통신시설 피해 70개 섬, 학교·병원 등 공공시설 피해 50개 섬 파손, 어선 50척, 리조트 시설이 있는 87개 섬 중 21개 섬이 폐쇄 중임.

-환경적으로는 해안침식, 지하수 오염, 산호초 파손, 육지의 염분화 등의 피해를 입음.

2) 몰디브의 복구·재건

□ 지진해일 피해 발생후 몰디브 정부는 1월 26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재건복구 프로그램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동 재건복구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국가 재난관리센터(National Disaster Management Center)를 설치하고 복구작업을 본격화 함.

-몰디브 정부는 '05년 3월 현재 상수도, 전기, 통신, 임시거주, 학교수업 개시 등 응급복구 상태는 성공적으로 완료된 상태이나 완전히 재건·복구하는데는 주택건설, 통신시설 개선, 해양방조시설 등 향후 5~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몰디브 정부는 구호·재건·복구 기금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감사위원회(Board of Trustees)를 설치하여 운영중임

□ 추정 소요비용

-몰디브 정부는 관광산업 재건에 100백만불, 주택건설분야에 74백만불, 통신시설 복구 등 행정분야에 50백만불, 상수도 및 염분화된 토지 담수화 사업에 45.6백만불 등 총 406.3백만불의 비용이 소요되며 총 소요비용 중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비용은 304.2백만불이라고 설명함.

□ 몰디브 정부는 그간 몰디브를 위해 구호금 및 현물 지원을 해준 한국, 일본, EU, 국제기구 및 NGO 등의 적극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명함.

3) 재건·복구과정에서 문제점

□ 20개 산호군으로 구성된 섬지역에 복구·재건 지원을 위한 접근 곤란

□ 섬들 지역으로 수송비용의 과다

□ 복구·재건 자원 부족 등

2. UN 지원현황(UNDP의 몰디브 UN 상주 조정관 Partice Coeur-Bizot 발표)

□ 긴급수요 우선순위:국민들의 삶 재건(Livelihood), 주택, 수송 및 인프라, 재해위험관리, 수자원 및 담수화 작업 및 공공행정 분야 순으로 재건·복구 과정에서 특별한 조정이 필요함.

□ UN은 몰디브 재건·복구를 위해 66.5백만불을 가용할 계획이며 3월 17일 현재 각국 정부, 정부간기구 및 9개 UN기관(OCHA, UNICEF, UNDP, WHO, FAO, UNEP 등)으로부터 63.4백만불을 확보하였으며 '05년 12월까지 추가기금을 조성할 계획임.

□ UN지원 우선분야

-이재민 구호 및 지원

-몰디브 경제회복 및 수산업, 농업 및 중소기업 복구

-교육, 보건, 수자원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복구

-수자원 및 산호초 보존 등 환경보호

□ 재건·복구시 유의사항

-현재의 구호단계로부터의 장기개발계획으로 이행단계에서 연계 및 철저한 준비 필요

-수자원, 담수화, 환경 등 복구단계시 통합적인

개발계획 필요

- 미래를 대비한 탄력 있는 피난대책 및 인프라 설치
- 재건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재원을 투입하여 수산업, 농업 등의 재건
- 재난대비태세 및 조기경보체계 구축
- 재건복구과정에서의 환경보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등

3. 국제기구 對몰디브 지원

- 아시아개발은행(ADB): ADB는 쓰나미 피해복구를 위해 설립한 아시아쓰나미기금(ATF) 중 몰디브의 인프라, 주택재건, 빈민층을 위해 무상 20백만불 및 Loan으로 1.8백만불을 지원할 계획임.
- 이슬람개발은행(IDB): IDB는 쓰나미 피해국가를 위해 500백만불을 지원할 계획인 바, 그 중 55.5백만불을 몰디브에 지원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 긴급원조를 위해 50만불을 전달하였으며 무이자 Loan으로 20백만불, 통상 금융이자로 15백만불 및 수입무역(Import trade) 자금으로 20백만불을 각각 지원예정임.
 - 주요 지원희망 분야는 수송, 공공시설, 교육, 보건분야이며 구체적인 사업분야는 4월 초에 몰디브 정부와 협의할 예정임.
- 세계은행(WB): WB는 몰디브에 총 40백만불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중 40%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금번 회의 종료후 몰디브 정부와 서명할 예정임.
- 기타: 사우디 펀드(20백만불) 및 쿠웨이트 펀드대

표(30백만불)는 몰디브 지원을 약속함.

4. 각국의 對몰디브 지원

- 미국: 우리 정부는 對몰디브 지원계획으로 금년부터 3년간 2백만불 지원 약속, 즉 긴급구호자금 0.14백만불, 긴급구호물자 0.2백만불 및 도서관 무선통신설비 복구분야(2.262백만불 소요)에 1.65백만불을 지원하되 추가 소요예산 지원여부는 추후 몰디브 정부와 협의할 예정임.
 - 아울러 우리 정부는 KOICA를 통해 91년부터 14년간의 무상원조실적(0.6363만불) 및 금년도 9만불 규모의 무상원조를 계획중임.
- 미국: 미국대표는 금번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서남아시아국에 지원할 10억불 규모의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의회가 승인하는데로 몰디브 지원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 EU: EU는 2.7백만 유로를 긴급 지원하였고 14백만불을 상수도, 어선 및 환경재건을 위해 구호금을 사용할 것을 발표하였고 대몰디브 참시 수입쿼터 및 무역관련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며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 관광, 어업 등에 50백만불의 soft loan을 추가 지원할 예정임.
- 일본: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몰디브에 20백만불을 지원약속하였고 3월 말경 JICA를 통해 공공건물, 어업분야 등의 기술자를 몰디브에 파견할 예정임. 특히 일본 정부는 몰디브 정부로부터 soft loan 지원요청이 있었으며 현재 일본 정부는 지원 여부를 심의중임.

Ⅲ. 관찰 및 평가

□ 몰디브 정부는 금번 원조공여국 회의를 통해 재건·복구를 위해 필요한 소요비용의 약 80%를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약속을 받음으로써 향후 몰디브 재건을 위한 각종 사업 이행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동 사실은 금번 지진해일 피해 이후 재건복구를 위한 몰디브 정부의 노력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원조금액의 집행과정에서 감시를 철저히 하기 위해 구성된 감시위원회에 국제기구 인사를 임명하는 등 투명한 행정확보를 위한 노력과 지진해일 피해 이후 약 80일이 경과한 현재 재건복구 프로그램 및 사업을 분야별로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평가됨.

□ 우리 정부가 몰디브에 지원예정인 도서간 무선통신사업 관련, 몰디브 대표단은(외교부 외자국 부국장 Ms. Aminath Didi) 우리 대표단을 만나 동 사업 소요금액과 우리 지원금액 간의 차액 61만불에 대해서는 금번 회의 후 양국 정부간 추가 협의하기를 희망하여 왔음.

□ 참고로 몰디브 대표단이 일본의 JBIC에 EDCF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음에 비추어 우리 정부에 대해 EDCF 자금 지원 요청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자료: 주몰디브 대사관]